

2015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국어 영역

1	②	2	①	3	①	4	⑤	5	③
6	④	7	③	8	④	9	⑤	10	②
11	①	12	①	13	③	14	③	15	②
16	④	17	①	18	①	19	③	20	④
21	⑤	22	②	23	④	24	④	25	⑤
26	⑤	27	③	28	⑤	29	⑤	30	①
31	⑤	32	②	33	③	34	①	35	④
36	②	37	②	38	③	39	⑤	40	②
41	④	42	⑤	43	⑤	44	②	45	①

국어 영역

** 화법 **

1. [출제의도] 발표 계획의 적절성 파악하기

이 발표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길거리 냉장고의 문제점이 아닌 차별화된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① 발표 앞부분에 메모를 인용하여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③ 질문을 통해 화제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④ 사진 및 음성 매체를 통해 청중에게 화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⑤ ‘우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 화제 제시의 순서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발표를 구조화시키고 있다.

2. [출제의도] 발표에 따른 청자의 사고 과정 파악하기

④는 제시된 정보의 신뢰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며 듣는 것이다.

② 상위 화제와 이에 속하는 두 가지 하위 화제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③ (1)과 (2)를 통해 알 수 있는 나눔 방식의 차이를 생각하고 있다. ④ 빙판길 보행을 힘들어 하는 노인과 연관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⑤ 화자의 나눔 제안에 공감하고 있다.

3. [출제의도] 토론의 논제 성격 파악하기

이 토론은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과 동물원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적절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논제의 성격은 동물원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을 내린 후 그 판단의 타당성을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출제의도] 토론의 흐름에 따른 논지 구성하기

‘학생 2’는 개별 동물의 동물권을 보호하자는 ‘학생 1’의 주장이 동물에 대한 과잉보호이며 동물의 습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러한 발언은 ‘학생 1’의 의견을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학생 1’은 이에 대해 자신의 발언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말하기 과정 분석 및 작문 내용 평가하기

㉔은 동물의 동물권을 보장해 주자는 ‘학생 1’의 관점에 부합한다. 따라서 ㉔을 ‘학생 2’의 입론의 전제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국립생태원에 다녀온 자신의 경험을 글의 앞부분에 제시하고 있다. ② ‘학생 1’은 입론을 통해 동물권에 관해 말하면서 동물원을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다. ④ ‘학생 2’는 입론과 반론을 통해 동

물원이 멸종 위기 동물 종의 번식과 생존 유지를 위한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동물의 자연 그대로의 본성을 살리자는 ‘학생 1’의 주장과, 동물원이 필요하다는 ‘학생 2’의 주장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다.

** 작문 **

6.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이 글은 우리나라 적정기술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말하면서 적정기술의 의미를 밝히고 시대적 상황과 관련한 적정기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글로, 적정기술에 대한 상반된 관점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① 1문단에서 적정기술의 등장 배경을 제시한 후, 적정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적정기술의 개념에 대해 묻고 답하며 화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적정기술과 대조되는 첨단기술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현황을 언급하면서 적정기술의 필요성을 시대적 상황과 연관 짓고 있다.

7. [출제의도] 발표 전략에 따른 실행 계획 평가하기

귀농 열풍이 우리나라 적정기술 도입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농의 이유에 대해 조사한 설문 결과를 수치화하여 제시하는 것은 발표의 주제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글쓰기

<보기>의 (가)에서는 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A씨의 사례를 통해, 주어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삶의 자립도를 높이는 적정기술의 기본적인 발전 방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나)에서는 폴 폴락의 사례를 통해 적정기술의 상품화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시사점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구체화된 것은 ④이다.

9.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에 따라 표현하기

‘학생 1’의 메모 내용으로 보아 유대인의 경제 교육, 경제 문맹의 위험성과 관련된 내용이 글에 제시되어야 한다. ⑤에서 유대인이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 용돈을 벌게 하며 경제관념을 가르친다는 것은 유대인의 경제 교육을 언급한 것이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을 활용하여 경제 문맹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경제 문맹의 위험성과 관련이 있다.

① 유대인의 경제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경제 문맹이 언급되기는 했으나 그것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② 경제 문맹의 위험성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③ 우리나라 청소년과 유대인의 경우를 비교하고 있으나 유대인의 경제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속담도 활용되지 않았다. ④ 유대인의 경제 교육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0. [출제의도] 작문 전략 판단하기

‘학생 2’는 경제 캠프의 참가 목적으로 쉽고 재미있게 경제 지식을 익힐 수 있다는 것, 경제 관련 의사 결정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경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과 자신의 경험을 들어 캠프 참여를 권유하고 있지만 캠프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① 2문단에서 캠프 1, 2부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하며 캠프 과정을 진행 순서

에 따라 소개하고 있다. ③ 1문단에서 용돈과 관련하여 독자의 경험을 환기하며 경제 캠프에 관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용돈 기입장을 쓰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시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한 개인이 용돈을 관리하는 것을 밑거름, 한 가정의 가계부, 한 나라의 재정 관리에 비유하면서 용돈을 잘 관리하는 것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 문법 **

11.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 적용하기

심리[심니]는 받침 ‘ㄹ’의 영향을 받아 ‘ㄹ’이 ‘ㄴ’으로 발음되므로 제19항에 따른 것이고, 두통약[두통낙]은 합성어로서 앞 단어의 끝이 자음 ‘ㅇ’이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야’이므로 ‘ㄴ’을 첨가하여 [두통낙]으로 발음된다. 이것은 제29항에 따른 것이다.

②의 점령[점녕], 상록수[상록수]는 제19항, ③의 쿵엣[쿵녜], 한여름[한너름]은 제29항, ④의 국물[궁물]은 <보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비음화, 눈요기[눈뇨기]는 제29항, ⑤의 종로[종노]는 제19항, 물난리[물랄리]는 <보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유음화의 사례이다.

12. [출제의도] 어법에 맞게 문장 표현하기

‘상의하다’는 ‘어떤 일을 서로 의논하다.’는 의미를 지닌 서술어로, 의논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약사에게’가 아니라 공동의 의미를 지닌 부사격 조사 ‘와’가 결합된 ‘약사와’가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유의어의 의미 파악하기

㉔은 문맥상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하므로 ‘의지’로 바꾸어야 한다.

14.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화살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다.’에 쓰인 ‘그리다’는 ‘어떤 모양을 일정하게 나타내다.’의 의미이므로, 그리다² ①의 의미를 보여주는 예문으로 넣기에는 부적절하다.

1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하기

㉔의 ‘제’는 ‘저+ㅣ’로 현대어 풀이를 참고하면 ‘자기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ㅣ’는 주격 조사가 아니라 관형격 조사이다.

** 인문 **

□ 출전: 윤효녕 외, ‘주체 개념의 비판’

1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1문단에는 후설의 의식 주체가 형이상학적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이, 3문단에는 주체에 관한 형이상학적 철학의 입장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무엇을 계기로 이러한 형이상학적 사고방식이 정립되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① 1문단에서 후설은 정신을 ‘나’의 본질로 보았으며 그 자체로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 동일성을 지닌 것으로 여겼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4문단에서 데리다의 사상은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해주며 다원적 사고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1문단에는 의식 주체의 개념이 주체에 의한 객체의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이, 3문단에는 형이상학적 철학이 차이와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절대 주체를 중심으로

로 재편하려는 욕망을 합리화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⑤ 4문단에서 데리다는 자기 동일성을 지닌 주체라는 개념이 허구이고 환상이기 때문에 해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7. [출제의도] 글의 핵심 개념 이해하기

데리다가 말하는 ‘차연’은 어떤 존재의 의미가 다른 요소들과의 차이에 의해 구별된다는 것이므로, 고정불변하고 절대적인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18.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식민주의는 세계를 이원 대립적 구도로 파악하여 종주국과 식민국이 우열 관계에 있다고 보는 데리다는 이러한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데리다가 말하는 해체란 종주국의 절대적 지위라는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각 나라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①에 나타난 것처럼 식민국이 열등성을 지녔다고 전제하는 것은 이원 대립과 위계의 가치 질서에 입각한 형이상학적 사고 방식이지 데리다의 견해라 할 수 없다. 데리다의 관점에서 보자면 <보기>의 식민주의는 상대적인 차이만 지니는 두 나라를 우열 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식민주의를 해체하려면 두 나라의 상대적인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19.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 ‘구별’은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남. 또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 놓음.’의 의미를 지닌다.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함.’의 뜻을 지닌 단어는 ‘평가’이다.

**** 사회 ****

□ 출전: 박수철, ‘입법충론’

20. [출제의도] 글쓴이의 관점 파악하기

글쓴이는 민주주의에서 의회의 역할에 주목하여 사회 갈등을 입법 과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최적의 입법 과정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탕이 되는 것으로, 이는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① 의회는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으로 시민이 입법 과정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③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법 과정은 의회의 영역이며 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21. [출제의도] 핵심 개념의 관계 파악하기

사전적 관리기능과 사후적 관리기능의 구분 기준은 사회 갈등이 앞으로 발생 가능한 것이냐, 이미 존재하는 것이냐의 여부이다. 그러므로 사전적 관리기능은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이고, 사후적 관리기능은 이미 발생한 갈등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2.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보기>의 A국은 경제 위기 이후에 의료보험에 대한 사회 갈등이 심화된 상황으로 이미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는 입법 과정의 사후적 관리기능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의회는 여론 조사를 실시한 후 참여 기구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대책기구’를 구성하였다. 참여 기구가 사회 갈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의회는 입법적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의회는 존재하는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를 내린 것이지만 입법 의제를 설정하면서 사회 갈등을 일으킨 것은 아니다.

① 의회는 갈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 기구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대책기구’를 구성하였다. ③ 의회는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여론 조사를 실

시하였고 그 내용이 법안으로 이어졌다. ④ ‘의료보험대책기구’에는 정부나 관련 당사자들이 고루 참여하였고, 이에 대다수 국민들도 기구의 활동 결과를 지지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참여 기구의 의견을 토대로 의회에서 법률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입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23. [출제의도] 어휘의 적절성 판단하기

‘담보되어야’는 ‘말아서 보증되어야’의 의미인데, 문맥상 ‘대표성과 중립성이 보증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지 않았으므로 ‘갖추어져야’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다.

**** 예술 ****

□ 출전: 신인선, ‘20세기 음악’

24. [출제의도] 글의 핵심 개념 이해하기

1문단과 6문단을 통해 우연성 음악이 음악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작곡 과정과 연주 과정에 우연성을 도입하여 음악의 불확실성을 추구하고, 음악의 지평을 넓혔음을 알 수 있다.

25.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파악하기

케이지는 작곡에 있어 인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면 소리가 자연스럽게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창작 과정에 우연의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을 선택한 이유는 작품 진행 과정에서 작곡가의 의도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① 케이지는 음악의 소리를 자연스럽게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지만, 창작 과정에서 자연의 소리를 활용한 것은 아니다. ② 케이지는 작곡을 할 때 전체 형식 구조는 합리적으로, 곡의 세부 진행은 우연적 요소에 의해 작곡을 하였으나 이 둘의 조화를 추구하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케이지는 작곡할 때 인위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우연적 요소를 도입하여 음의 세부 진행을 결정하였다. 작품의 요소들이 동일한 횟수로 반복되도록 하는 것은 작곡가의 의도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케이지가 주역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작품의 의미를 주역 사상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은 아니다.

26.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가]를 보면, 옥타브를 변경하여 연주하는 경우는 동일한 악구를 두 번째로 연주할 때이다. <보기>에서 악구 E는 한 번만 연주되기 때문에 연주 과정에서 옥타브가 변경되지 않는다.

① 악구 A는 악구 B와 악구 D 다음에 연주되고, 악구 B와 악구 D는 모두 다음에 연주되는 악구를 2/4박자로 연주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악구 A는 모두 2/4박자로 연주된다. ② 악구 C는 다음에 연주되는 악구를 ‘모든 박 악센트’로 연주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두 번째 반복되는 악구 B와 악구 D는 모두 악구 C 뒤에서 연주되기 때문에 이 두 악구는 모든 박을 악센트로 연주해야 한다. ③ 처음에 악구 C는 악구 E 다음에 연주되고, 두 번째 반복되는 악구 C는 악구 A 다음에 연주된다. 따라서 악구 C는 처음에는 ‘보통 빠르기’로, 두 번째는 ‘느리게’로 연주된다. ④ <피아노 소품 XI>은 동일한 악구를 세 번 반복할 때 연주를 마치게 된다. 악구 C는 이미 두 번 반복되었기 때문에, 악구 D 다음에 한 번 더 연주한다면 세 번째 반복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주가 끝나게 된다.

**** 과학 ****

□ 출전: 스티븐 제이 굴드, ‘판다의 엄지’

27.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1년의 날수가 늘어나는 현상의 이유를

지구의 자전 속도 변화에서 찾고 있으며, 이 현상이 지속될 경우 나타날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

28.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운동량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달의 공전 궤도가 늘어나고 지구와 달의 거리는 멀어져야 한다.

① 2문단을 통해 지구 표면은 달의 인력과 지구-달의 원운동에 의한 원심력의 영향을 받아 양쪽이 부풀어 오름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을 통해 지구의 자전 주기가 달의 공전 주기보다 빨라 지구의 부풀어 오른 면은 지구와 달을 잇는 직선보다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을 통해 달의 인력이 앞서 나가고 있는 지구의 부풀어 오른 면을 지구 자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다시 끌어당겨 지구의 자전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을 통해 지구의 인력이 달에 작용하여 달의 자전 속도를 느리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9. [출제의도]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기

2문단을 통해 달과 반대편 지구의 표면이 부풀어 오른 이유는 지구-달의 원운동에 의한 원심력보다 달의 인력이 작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갈래 복합 ****

□ 출전: 허전, ‘고궁가’
이규보, ‘방선부’

30.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화자는 청자인 ‘고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집안일에 힘써야 함을, (나)의 화자는 청자인 ‘그(결에 있던 사람)’에게 탐욕스러운 세대에서 청렴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함을 깨우치고 있다.

3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김가 이가 고궁들’은 집안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만든 존재로, 임진왜란 직후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국사를 돌보지 않는 무능하고 부패한 신하들의 모습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인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글은 나라를 집에 비유하고 있으므로, ‘큰 집’은 ‘한어버이’가 처음 세웠다는 점에서 조선을 의미한다. ② ‘근검’은 건국 초기의 신하들이 지녔던 덕목이므로, 현재 부패한 신하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볼 수 있다. ③ ‘마음을 다투는 듯’은 신하들이 개인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싸우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신하들의 당파 싸움을 의미한다. ④ 조선이 임진왜란 직후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화강도’는 왜적을 의미한다.

32.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나)는 탐욕스러운 인간을 ‘거미’에, 욕심이 없고 성품이 선량하며 깨끗한 인간을 ‘매미’에 비유하여 부정적인 인간 세태를 비판하는 작품이다. ㉠은 거미와 매미의 속성을 대조하며 매미를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가 매미처럼 청렴한 삶의 태도를 지향함을 보여준다.

③ 고사 속의 인물은 거미의 탐욕을 드러내기 위해 인용되었을 뿐, ‘나’가 적극적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욕심을 부리다가 곤란에 처하는 파리와 나비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⑤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매미에게 충고하고 있는 부분으로, 학문 수양에 관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초나라 왕이 감금당한 것은 진나라가 영토를 확장하려 한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초나라 왕은 (나)의 거미처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에

의해 어려움에 처한 인물이므로, 비판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① (가)의 화자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신하들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보기>에서 신하들이 왕과 나라의 위기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 것에 주목할 것이다. ② (가)의 화자는 개인보다 나라를 위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나라를 위하는 충신인 굴원의 태도를 긍정할 것이다. ④ (나)의 화자는 탐욕스런 거미에 의해 위협에 빠진 매미를 안타까워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굴원이 신하들에 의해 벼슬에서 물러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길 것이다. ⑤ (나)의 화자는 탐욕스러운 거미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진나라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 현대소설 ****

□ 출전: 윤홍길, ‘꿈꾸는 자의 나성’

3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나’는 ‘강 선배’와 대화하면서 서울 생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현실이 ‘나’가 생각했던 삶과 다르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나’는 내적 갈등을 하며 ‘강 선배’에게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35. [출제의도] 인물의 태도 및 심리 파악하기

㉠은 현실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나’가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한 것일 뿐, ‘나’가 그리워하는 삶이라 보기는 어렵다.

36. [출제의도] 공간적 배경의 상징성 파악하기

‘이 씨’가 서울에서 고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현실과 마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는 이러한 ‘이 씨’의 모습을 통해 고향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된다. 따라서 ‘그 고향’은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부딪쳐 나가는 공간이라 볼 수 있다.

37.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은 ‘절치부심(切齒腐心)’과 ‘와신상담(臥薪嘗膽)’이라는 한자성어를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강 선배’의 비장한 각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 ‘강 선배’가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① ‘빠 빠지게’라는 관용적 표현을 통해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③ ‘내 등을 힘껏 떠밀어 준’이라는 감각적 표현을 통해 ‘이 씨’의 심경 변화가 ‘나’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서울로 가기 위해서 서울을 떠나려 한다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나’는 ‘이 씨’가 한 말을 곱씹으며 그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⑤ ‘고향 길의 초입에 해당하는 손 과장의 관문’이라는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38.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강 선배’와 ‘나’의 대화에서, ‘강 선배’는 ‘나’에게 감상적이고 나약한 자세로 살다가는 서울에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강 선배’가 서울 생활에서 감상적인 태도로 인해 실패한 인물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에인절피시’는 거추장스러운 장식물 때문에 굶주린 적들한테 좋은 표적이 된다는 점에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나’와 ‘이 씨’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② ‘장식물’은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추장스러운 것이라는 점에서, ‘나’가 추구하는 정직한 삶의 태도라 할 수 있다. ④ ‘비수’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라는 점에서, ‘강 선배’가 타인에게 당한 수모를 갚으려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⑤ ‘수마트라’는 서로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양갈음을 결심하는 ‘강 선배’의 모습에

해당한다.

**** 고전소설 ****

□ 출전: 작자 미상, ‘곽해룡전’

39.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지상에서 해룡이 꾸 꿈과 해룡의 전투 장면에 비현실적 인물이 등장하지만 천상과 지상의 공간이 교차하는 것은 아니다.

① 전투 과정에서 초현실적 요소를 삽입하여 독자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 ② 주인공이 부친을 구출하고 진번과 대결하는 장면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였다. ③ 부친의 위급함을 알려주는 꿈으로 인해 해룡이 아버지를 찾으러 떠나고 진번과 싸워 아버지를 구출한다. ④ 전투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독자에게 긴장감을 준다.

40.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주인공은 스승인 응천도사의 말을 떠올리지만, 스승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는다.

41. [출제의도] 사건의 전개 과정 파악하기

주인공은 부친과 상봉한 후 부친의 분을 씻기 위해서 진번과 다시 싸움을 벌인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진번왕의 만만치 않은 대응을 보며 주인공은 재주를 다시 행하여 사방을 물바다로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적장인 목특과 만나 싸우면서 화살과 돌이 쏟아져 위급한 상황이 되는 등 종일토록 승부가 나지 않는 상황이므로, ‘싸움에 이긴 형세를 타고 계속 몰아침.’의 의미를 지닌 승승장구(乘勝長驅)는 적절하지 않다.

① ‘분기충천(憤氣衝天)’은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격렬하게 복받쳐 오름.’을 이르는 말이다. ② ‘혼비백산(魂飛魄散)’은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이다. ③ ‘건곤일척(乾坤一擲)’은 ‘운명을 걸고 단판결이로 승부를 겨룸.’을 이르는 말이다. ⑤ ‘난형난제(難兄難弟)’는 ‘두 사물이 비슷하여 낮고 못함을 정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주인공이 비범한 능력을 얻기 위해 도술을 배우는 것은 아버지를 구하여 충족에 이르기 위한 탐색 과정에 해당한다.

① 목특과의 전투가 길어지면서 충족에 이르기까지의 탐색 과정이 더 길어지게 된다. ② 노승을 통해 아버지를 더 빨리 만나게 되므로 충족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된다고 볼 수 있다. ③ 부친의 유배로 결여가 생기고, 부친과의 만남은 결여를 해소한다. ④ 모친이 노비가 되어 주인공과 이별하는 것은 부친을 찾는 과정에서 겪는 또 다른 결여로 볼 수 있다.

**** 현대시 ****

□ 출전: 박목월, ‘나무’

김선우, ‘빌려줄 몸 한채’

43. [출제의도] 화자의 정서 및 태도 파악하기

(가)의 화자는 여행의 과정에서 만난 여러 나무의 모습을 통해 얻은 삶에 대한 생각과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배추가 자라는 과정을 관찰한 결과 알게 된 삶의 이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① (가)는 공간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를 보이고 있어 계절의 순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나)는 배추의 모종을 심어 배추를 기르면서 발견한 삶의 태도에 주목하고 있다. ③ (가)의 화자는 자신이 깨달은 삶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을 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세계를 희망하는 것은 아

니다. (나)의 화자 역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세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44.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화자는 여행에서 만난 나무를 통해 인간의 삶이란 묵중하기도 하고, 침울하기도 하며, 때로는 고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를 ㉠과 같이 열거와 영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즉 묵중·침울·고독은 화자가 여행을 통해 발견한 삶의 모습으로, 화자는 이를 받아들이고 있기에 거부감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화자는 여행길에서 만난 ‘묵중한’, ‘침울한’, ‘고독한’ 나무를 통해 삶의 본질적인 고독을 깨닫고 있는 것이지, 적극적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된 것은 아니다.

② (가)의 화자는 나무가 자신의 안에 뿌리를 퍼고 있으며, 자신이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나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③ (가)의 화자는 나무에 대해 묵중하고 침울하고 고독하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④ (나)의 화자는 배추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있다. ⑤ 배추가 처음부터 속이 팍 찬 상태로 자라는 줄 알고 있었던 (나)의 화자는, 배추의 성장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된다.

오존은 광화학 반응에 의한 2차 오염 물질로, 여름철 햇빛이 강할 때 오존 분압이 높다.